

# 벤츠, 5년째 이어지는 수입차 시장 1위 독주

## 국내 수입차 시장 경쟁 후끈

벤츠, 2016년 10세대 E클래스

당시 부동의 1위 BMW 추월

이번엔 '성형수술' 신차로 격돌

제네시스, 고급차 시장 1위 '변수'

5년여 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까. 2018년 화재사태를 딛고 일어난 BMW의 추격이 거세다. 수입차 업계에선 두 회사가 '불꽃 모델' 신차로 맞붙는 4분기에 판매 실적이 엇갈릴지 주목하고 있다.

두 브랜드의 선두 다툼은 E클래스와 5시리즈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2016~2017년 출시된 벤츠 10세대 E클래스와 BMW 7세대 5시리즈의 경쟁에선 E클래스가 '판정승'을 거두며 벤츠의 독주로 이어졌다. 이 모델들이 최근 페이스리프트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맞붙는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BMW는 국내 수입차 업계 불변의 1위 브랜드였다. 한국수입차협회가 브랜드별 차량 등록 집계를 시작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를 보면,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를 제외하곤 BMW가 줄곧 판매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간발의 차이로 렉서스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BMW가 '부동의 1위' 자리를 벤츠에 빼앗긴 건 2016년이다. 2016년 벤츠의 역전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있다. 같은 해 발발한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이 개점 휴업상태가 된 가운데 아우디에서 이탈한 소비자가 벤츠로 향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사장의 공격적인 경영이 성과를 냈다고 보고도 한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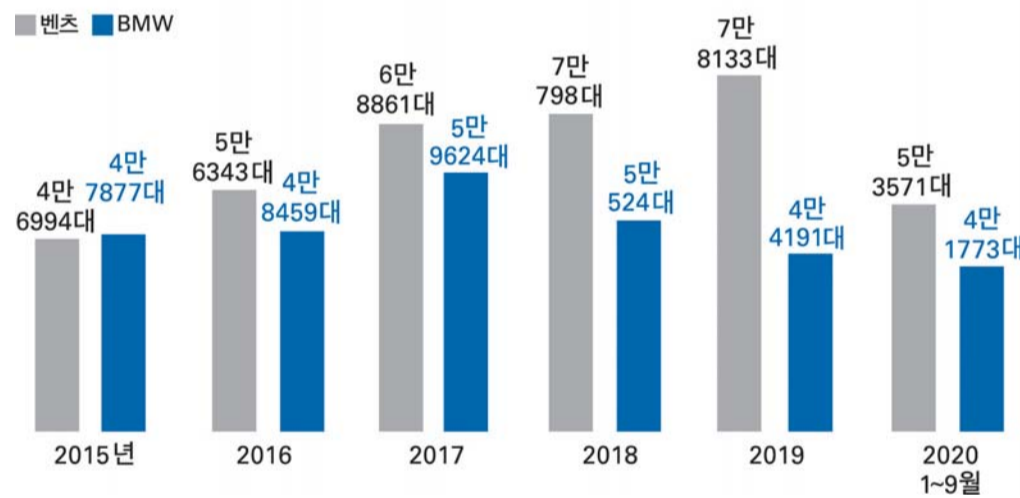
## BMW, 화재사태 악몽 씻고 맹추격

다만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 벤츠의 가장 확실한 성공 요인은 같은 해 완전 변경한 10세대 E클래스다. 앞서 폴체인지로 성공을 거둔 S클래스의 '판박이' 디자인을 갖추고 플래그십에나 담길 법한 옵션을 넣은 E클래스는 출시와 동시에 불타게 팔려나갔다. 2016년 1~6월 6597대 판매에 그쳤던 E클래스 판매량은 폴체인지 이후인 7~12월엔 1만6240대로 판매가 늘었다. 6개월간 판매된 10세대 E클래스 판매량이 같은 해 벤츠 전체 판매량(5만6343대)의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였다.

E클래스의 선전으로 궁지에 몰린 BMW는 이듬해 2월 7세대 5시리즈를 재빠르게 들여왔다. 김호준 당시 BMW코리아 회장은 본사와 협의를 통해 5시리즈 모든 차종에 500만원 상당의 옵션인 'MS 포트 패키지'를 기본 적용하는 승부수도 걸었다. 그러나 결과는 '판정패'였다. 출시 첫해인 2017년 판매량(6시리즈 포함)이 2만4714대에 그치며 3만 2414대가 팔린 2년차 10세대 E클래스에 패했다. 이듬해 발발한 BMW의 화재사태로 벤츠와의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해엔 벤츠(7만8133대)와 BMW(4만4191대)의 브랜드 판매량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약 5년간 벤츠에 굴욕을 맞본 BMW는 올 들어 반격을 시작했다. 올해 1~9월 두 브랜드의 한국 판매는 벤츠가 5만3571대, BMW가 4만1773대로 1만 1798대 차이가 난다. 전년 같은 기간 두 브랜드의 판매 격차(2만4647대)에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3분기만 보면 벤츠가 1만7203대,

## 벤츠, BMW 국내 판매 대수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BMW가 1만6343대를 팔아 두 브랜드의 판매 격차는 860대에 불과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자동차학)는 "최근 벤츠와 BMW의 판매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재고 판매 전략과 함께 BMW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출시된 5시리즈의 판매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4분기에는 수입차 1위 탈환도 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4분기가 반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E클래스와 5시리즈의 신차 재격돌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016년 폴체인지 모델을 벤츠보다 한발 늦게 내놓은 BMW는 페이스리프트에선 한발 앞섰다. BMW

는 지난 5일 7세대 5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다. 벤츠는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달 중 출시한다.

두 차 모두 '폴체인지에 가까운 수준'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판매량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공개된 이미지들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는 건 E클래스다. 벤츠의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된 첫 차다. 전면부 그릴은 물론 후면램프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돼 완전히 다른 차가 됐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2016년 10세대 E클래스는 앞서 출시된 S클래스 디자인의 인기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를 통해 적용된 패밀리룩은 E클래스에 가장 먼저 적용됐다"며 "시장의 반응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국내 공개 전인 E클래스 역시 편의사양 등에 대폭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인테리어와 파워트레인은 물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Intelligent Drive) 시스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등 다방면의 혁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MW 5시리즈의 디자인은 주간 주행등과 키드니 그릴의 형태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크게 바뀌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E클래스보다 변화폭이 적다. 5시리즈의 변화는 외관보다 성능에 집중했다. 액티브크루즈컨트롤과 차선유지어시스트, 충돌 회피조향어시스트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전 모델에 기본 탑재된다. 주변 교통상황을 계기판에 3D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신용카드 형태의 NFC 기반 '키 카드'가 기본 제공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디지털 키'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업계에선 BMW의 한국법인 판매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엔 5시리즈의 승리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BMW는 지난 5월 5·6시리즈의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한국에서 열 만큼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벤츠·BMW, 사정당국 조사도 변수  
가격 또한 승부를 가를 요인으로 꼽힌다.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 두

차의 가격 인상폭은 5시리즈가 더 적다. 엔트리 차급인 520i 럭셔리 버전의 경우 6360만원으로 이전 모델 대비 30만원 올랐다. E클래스 250e는 150만원이 오른 6450만원으로 책정됐다. BMW코리아 측은 "다양한 점단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두 브랜드의 1위 싸움에 변수로는 제네시스가 꼽힌다. 두 브랜드의 잠재 소비자층이 제네시스로 이동한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네시스는 올해 한국 시장에서 1~9월 7만 7358대를 판매하며 고급차 분야에서 1위 브랜드로 도약했다. 제네시스는 2017년 이후 줄곧 수입차 1위 벤츠보다 판매량이 적었지만, 1~9월 판매량이 벤츠의 지난해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고급차 시장 1위를 탈환할 전망이다. 또 디젤게이트의 충격을 딛고 올해 1~9월 전년 대비 200% 판매를 늘리고 있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역시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벤츠와 BMW가 나란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벤츠코리아 본사를, 지난달엔 BMW코리아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환경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에 따른 고발로, BMW코리아는 2018년 화재사태 당시 결함을 은폐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제네시스 '더뉴 G70'



BMW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